

# DSR 규제 조기 시행...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내년 1월부터 대출액 2억 초과 시 적용...카드론도 포함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80% ↑...전세·신용대출 강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정이 더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

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기환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

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된다.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때 최고경영자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가계대출 취급 위반사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증급리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상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 투데이 경제

#### aT, 온라인 수출상담 1천400만달러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22일 서울 aT센터에서 '수출시장 다변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어 총 120건, 1천400만달러(약 164억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선도업체 37개사와 캄보디아·필리핀·호주·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신남방 및 신북방 신흥시장 6개국의 바이어 43개사가 참여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시장 진출 전략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면 개설했다.

온라인 수출상담회 외에도 K-Food 온라인 전용관, 배달업 연계 판촉, 인플루언서 연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출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 내달 1일부터 9개 소비쿠폰 사용 재개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

정부가 오는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시와 함께 외식·체육·여행 등 9개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개시 시점에 맞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식·공연·농수산물 쿠폰 등 3종은 일부 온라인 사용이 가능했지만 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프로스포츠 관람 등 6개 쿠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해 11월 이후 사용을 중단했는데 이 쿠폰들까지 전면 사용을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정예예산(추경), 올해 본예산, 올해 2차 추경으로 5천528억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했다. 장기간의 사용 중단으로 예산 집행률은 15일 기준으로 58.7%에 불과하다. 남은 예산 잔액은 2천282억원인데, 다음달 1일부터 이를 모두 쓴다.

남은 예산이 가장 많은 쿠폰은 농수산물 쿠폰(739억원)이다. 숙박 쿠폰(565억원), 체육 쿠폰(330억원), 외식 쿠폰(180억원), 공연 쿠폰(139억원), 영화 쿠폰(123억원), 여행 쿠폰(90억원), 전시 쿠폰(86억원), 프로스포츠 쿠폰(30억원)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면서 여행·숙박·전시 쿠폰 등은 할인율과 할인폭 등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다양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대한승유관공사 서울지사로 드나드는 탱크로리 차량. /연합뉴스

## 유류세 20% 인하 '역대 최대'...휘발유 1당 164원 ↓

### 11월12일-내년 4월30일...체감까지는 2주 가량 걸려

오는 11월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

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등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7%, 10%, 15%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1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10월 셋째 주(10월18-22일) 전국 평

균 판매가격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1당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간 총 2조5천억원 상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p) 끌어내리는 효과를 낸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기한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연합뉴스

##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를 내 지급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

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명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금타, 광고학회 선정 '올해의 브랜드상'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한국광고학회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의 브랜드상'은 올해 16회째로, 매년 기업들의 광고 및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평가해 고객만족, 고객충성도 제고, 브랜드 자산 구축 등의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

한국광고학회는 1960년 첫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한 금호타이어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3년 연속 국내 타이어 판매 1위 기업으로 안착했고 아시아, 유럽, 북미까지 해외 9개 판매 법인 및 11개 지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점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기수희기자

### 신협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42% ↑

신협중앙회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3천785억원을 기록, 전년동기(2천657억원) 대비 42%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은 "대출 건전성을 높여 연체율이 감소했고 요구불예금 증가로 예금 비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재무 현황을 보면 총자산은 119조8천억원, 여신은 88조7천억원, 수신은 107조6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자산 8.0%, 여신 12.4%, 수신 8.2% 성장한 수치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4분기 역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 급매 전문

**[ 돈되는 상가 ]**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층 톨60개
- 급매8억
-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모텔·호텔(지역무관)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